『젠더와 문화』 제10권 1호(2017), pp. 83-120

연구논문

대학생들의 '썸 문화'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과 양가적 행위성*

양동옥** · 김경례***

〈국문초록〉

'썸 문화'는 연애를 포기당한 세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나 이기적이며 책임감 없는 관계 맺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청년들의 썸은 사랑과 연애 문화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적 협상과 실험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 글은 대학생들의 썸의 행위성에 초점을 맞춰 썸의 진행 과정, 관계 맺기의 특성과 의미를 탐색했다. 썸의 과정에는 썸을 빨리 끝내고 연인관계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관계를 단절하려는 욕망이 강하게 나타났다. 썸의 관계 맺기는 깊은 성적 친밀감을 나누기 전에 상대를 걸러 내려는 것과 썸 행위를 긍정적인 능력으로 평가함으로써 전통적 젠더 규범에 균열을 내는 특성을 보였다. 더구나 썸은 관계의 지속성을 전제하지 않기에 관계 맺기와 단절이 용이하지만, 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서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썸은 사랑과 연애에 대한 전통적 젠더 규범 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성들에게 전략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하기도 하며, 연애와 결혼을 유예당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연애와 유사한 설렘과 친밀감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주제어: 썸 문화, 관계 맺기, 걸러내기, 규범의 균열, 책임감 부재

---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3A2046905).

** 주저자,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강사(doyang@jnu.ac.kr)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SSK사회적재생산연구단 학술연구교수(kgr2037@naver.com)

ⓒ 2017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DOI - http://dx.doi.org/10.20992/gc.2017.06.10.1.83

1. ‘썸 타는’ 대학생들의 연애, 과연 문제인가?

최근 ‘썸’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썸 탄다’, ‘썸남썸녀’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고 썸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와 코미디 프로그램, 썸인지 아닌지를 상담하고 판단해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썸은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로 대중화 · 보편화 되었다(김정영 · 이성민 · 이소은, 2014). 썸은 영어의 썸씽(something)에서 파생되었지만, 그 유래도 명확하지 않고 한국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썸은 일반적인 친구 관계보다는 가깝고 그렇다고 연인은 아닌 모호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연인이 되기 전 불확실하고 모호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과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를 저울질하는 만남의 과정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과정을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밀당’, ‘썸’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청년들은 ‘썸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썸 문화’ 열풍을 바라보는 사회문화적인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먼저, 청년들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사랑과 연애, 결혼, 출산 등의 포기를 강요당하는 청년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이 있다. 경제위기와 청년실업,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스펙 쌓기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이성교제에 충분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경제적 노력을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썸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광주일보』, 2014.8.19; 〈지식채널e〉, 2015.2.17). 현재 한국의 청년들이 ‘88만원 세대’(우석훈 · 박권일, 2007), ‘청년 실업’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삼포세대’, ‘오포세대’를 넘어 ‘칠포세대’, ‘N포세대’로 불릴 만큼 애정관계 및 직

업적, 사회적 영역에서 희망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의 욕망을 비가시화하며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년이 연애와 결혼을 갈망하는 것을 사치 내지는 현실 검증력이 결여된 행동으로 규정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목수정, 2010).

한국의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연령이 늦어지며 그것을 의무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나 '삼포세대'로 불리는 20대의 78.6%가 연애 경험이 있으며, 이들에게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의향을 물었을 때, 사회·경제적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은 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4). 그렇다면, 사랑과 연애, 결혼의 포기를 강요당하는 사회구조적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이 사랑과 연애를 어떻게 의미화, 실천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여건과 연애의 실천과정 간에 어떻게 전략적 협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체의 붕괴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특징으로 대변되는 사회문화적 변화의 반영으로서 청년들의 '썸 문화'와 연애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한금윤(2015)은 대학생들의 연애와 결혼 의식을 자기서사 쓰기를 통해 분석하면서 연애와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포기하겠다는 응답자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것을 밝히며, '삼포세대'라는 표현은 언론의 지나친 조장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연애 및 결혼의 포기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그것이 자아실현의 걸림돌로 여겨지거나 연애와 결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더 주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공동체의 붕괴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고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는 감정노동을 회피하게 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연애와 결혼을 자발적으로

거부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부산대 여성연구소, 2011: 165). 또한 디지털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세대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연애관에 반영되어 썸 문화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를 찾고 소비하는 스마트 폰 세대의 생활양식이 연애관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관계 맺음에 익숙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연애 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설명들은 연애 관계 및 행위를 구성하는 사회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들까지 주목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주로 공동체의 붕괴와 개인주의 문화, 그리고 디지털 문화가 청년의 사랑과 결혼의 포기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유도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관계의 일시성, 피상성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문화적 구속력에 비해 청년의 행위성, 그리고 다차원적인 썸 문화의 의미와 양상들을 비가시화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썸과 연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성을 드러내야 한다. 대학생의 '썸 문화'를 '문제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의 포기와 연애 욕망 사이에서, 관계의 일시성과 지속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경합 및 협상이 이루어지는 주체의 전략적 선택 과정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섹슈얼리티, 사랑, 연애, 결혼에 관한 전통적 규범의 위반으로서 '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나 연애는 친밀감, 배려, 존중, 이해, 열정, 책임감, 헌신, 지속성 등과 같은 관계 맺기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표준화된 규범이 있고, 이 규범을 벗어난 관계 맺기는 '문제가 있는' 혹은 '경계해야 할' 만남으로 부정되거나 폄하된다. 또한 이러한 사랑이나 연애의 규범에 기반한 성관계나 결혼이 '건강한' 혹은 '정상적'인 것이며 사랑, 연애, 섹슈얼리티, 결혼이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배적인 사회적 통념이 있다. 연인이나 부부도 아니면서 성관계를 맺거나 이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일부 청년의 '썸 문화'나 연애에 관한 부정적 해석은 이러한 전통적이고 표준화된 규범의 위반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또한 청년들의 '썸 문화'는 상대에 대한 배려나 관계의 지속성보다는 계산된 선택과 순간의 설렘을 추구하며 서로에 대한 구속과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노컷뉴스』, 2014.2.24; 『딴지일보』, 2015.7.8) 것이라는 평가는 일면 타당하지만, 다양한 양태로 드러나는 청년들의 썸 문화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으며, 사랑과 연애에 관한 표준화된 규범에 비추어 썸 문화를 이질적이고 낯선 것,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진정한' 혹은 '이상적인' 사랑이나 연애의 정석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화되고 전형화된 연애와 일상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실제 연애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다(이태숙, 2009). 따라서 청년들의 '썸 문화'를 사랑이나 연애에 관한 표준화된 규범에 따라 예단하거나 특정 속성을 갖는 것으로 미리 규정하기 보다는 연애와의 연속성을 갖지만 연애 직전에 수행하는 사랑과 연애의 수행과정으로서 썸의 구체적인 실천 및 의미화 과정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섹슈얼리티, 사랑, 연애, 결혼에 관한 관념과 재현은 주체들의 실천과 의미화 과정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 재구성되며 재구성된 관념과 이미지는 다시 주체들의 실천과 의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청년들의 '썸'을 자신들의 사랑과 연애 문화를 만들어 가는 전략적 협상과 실험의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들의 '썸 문화'를 연애를 포기당한 세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문화, 일시적이고 책임감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현상이라는 일면으로 환원하기 보다는 청년들이 썸의 의미화와 실천 과정을 통해 무엇을 욕망하며 어떻게 관계 맺기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썸 타기'를 실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행위성을 통해 썸 문화를 형성하는 실천 양상과 특성, 썸의 의미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랑과 연애에 대한 표준화된 규범이 어떻게 반영

되고 균열을 일으키는지, 사랑이나 연애 관계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규범, 연애각본 등이 어떻게 내면화되거나 협상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썸에 관한 학술적 논문은 미비하지만, 먼저 소비자본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대학생의 연애 문화를 분석하는 흐름이 있다. 소비자본주의는 이벤트, 기념일 챙기기 등의 소비를 부추기는 '프로젝트로서'의 연애와 로맨스 각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김현경, 2003), 대학생은 연애 과정의 소비활동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통해 연애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윤영준, 2006), 이러한 소비를 의식하는 연애각본은 계층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의 대학생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김효진,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소비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대학생 연애 문화의 변화 양상이 지니는 일면을 잘 보여주지만 배려나 설렘, 친밀감 등 연애 관계의 감정적 특성이 변화되는 양상을 포착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개인의 성향과 성장과정이 연애 만족도와 연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심리학적 연구들이 있다.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원가족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하거나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연애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조아라 · 오제은, 2014; 조현정 · 이승연, 2014), 불안정 애착 유형인 사람은 상대에게 자기노출을 꺼리며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연애 관계 만족도가 낮다(김광은 · 이위갑, 2005; 김명숙, 2008; 성정아 · 홍혜영, 2014)는 연구가 있다. 또한 자존감과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연애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이인

재 · 양난미, 2015).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성향이나 성장과정이 연애 관계의 주요한 감정적 특성들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으나, 자칫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며 만들어가는 과정인 연애와 그 결과를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환경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환원주의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이나 '바람직한 연애 관계'를 미리 상정하여 그것이 역사적 맥락성과 사회문화적 구성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 결과 다양한 사랑 및 연애의 양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예단하거나 비가시화할 위험이 있다.

'진정한 사랑'이나 '바람직한 연애 관계'의 역사성과 구성성에도 불구하고 당대를 지배하는 규범으로서의 사랑관과 연애관은 존재한다. 스턴버그(Sternberg, 1986)가 제시한 진정한 사랑의 세 요소인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헌신(commitment)은 본질적으로 진정한 사랑의 속성이라기보다는 18세기 후반 이후에 등장한 낭만적 사랑의 개인적 속성들이다. 또한 낭만적 사랑은 실재하는 사랑의 모습의 거울이기 보다는 특정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랑의 이상적 이념형이다. 사랑과 연애, 결혼의 근대적인 표준화된 규범이자 이상향인 낭만적 사랑은 실재하는 사랑, 연애, 결혼의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 점에서 사회학자 기든스(Giddens)는 사랑과 친밀감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조형적 사랑(plastic love)",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로 구분하고 여전히 낭만적 사랑의 규범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랑의 유형과 양상이 출현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1] 근대사회에서 형성된 낭만적 사랑은 연애를 결혼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었고 결혼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계약이거나 재생산의 수단

1) 기든스의 설명에 따르면, 조형적 사랑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성적 만족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형이며, 이러한 관계에서는 친밀성과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순수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의를 바탕으로 인격적 친밀감을 극대화한 사랑의 유형이다.

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실천하는 공간이자 과정으로 새롭게 의미화하였다(기든스, 2003). 하지만 낭만적 사랑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녀가 대등할 수 없으며, 연애 및 결혼 관계에서 여성의 수동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기든스 역시 낭만적 사랑이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혼남성과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차이를 근거로 성별에 따른 이중규범을 문제제기 하기도 하였다(기든스, 2003: 83).

기든스가 제시한 사랑의 유형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나타난다. 섹슈얼리티와 연애, 결혼을 연결시키는 인식과 관계의 지속성을 꿈꾸는 낭만적 사랑의 유형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낭만적 사랑을 꿈꾸며, 과거에 비해 조형적 사랑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이다.

하지만 연애, 사랑, 결혼의 선택지는 확실히 과거에 비해 확장되었고 그 선택은 개인화되었다(바우만, 2013; 일루즈, 2013). 또한 더 이상 영원히 지속적인 관계를 꿈꾸지도 않는다. 기든스는 영원한 지속성보다는 우발적이며 적극적이고 보다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연애를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기든스, 2003). 선택이 개인화될수록 연애, 사랑, 결혼은 지독히 혼란스럽지만(벡 · 벡-게른샤임, 2006)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표준화된 규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 행위자의 주체적이며 전략적인 행위 선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기 근대사회에서 개인 행위자는 사회 규범과 관습,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행위와 규칙을 수동적으로 순응하며 수행하기보다는 주체적,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협상하면서 구성해 나간다(오세일 · 박태진, 2016: 215-216).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학생들의 '썸' 실천이 사랑과 연애의 지배적인 규범, 즉 친밀감 및 설렘, 관계의 지속성 추구, 서로에 대한 책임감

및 헌신 등의 속성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택되고 협상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연애 관계 및 실천에 있어서 젠더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강진영 · 정태연(2001)은 남성들은 연애를 통해 안정적인 애정을 추구하고, 여성들은 싱글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연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변혜정(2010)은 대학생들의 연애는 일종의 '자기계발' 과정이며 남성은 섹스를 통해 연인 관계를 확증하려 하지만, 여성은 친밀한 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섹스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남성은 연애 과정에서 '자기 계발의 능동적 주체'가 되지만 여성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동성과 능동적 욕구 사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으면서 '젠더화된 주체'가 된다(변혜정, 2010: 54). 엄기호(2010)는 대학생들의 연애 실천에서 중요한 부분인 '데이트비용 부담'에 있어서 남학생, 여학생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남학생은 더 많은 데이트비용 부담을 전통적인 젠더 규범의 작용이나 역차별로 이해하는 반면, 여학생은 경제력의 차이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청년들의 독특한 연애 실천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 이안나(2013)는 대학생들의 모텔 활용 양상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모텔은 독립이나 동거로 인해 발생하게 될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성적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김은정(2011)은 20대 여성의 연애는 학업, 직업, 결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젠더 불평등 구조에 진입하기 보다는 성적 관계를 포함한 이성 간 상호교류와 소통의 기회로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연애 관계 및 실천은 개인적인 것이자 사회적인 산물이다. 젠더 불평등 구조 속에서 연애의 의미, 목적, 방법 모두에 있어서 젠더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다 제한적인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섹슈얼리티, 사랑, 연애에 관한 여성들의 의미화와 실천도 지배적인 규범에 순응하기보다는 여성

이 처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전략적 협상과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들의 '썸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썸의 의미화와 실천에서 나타나는 젠더 차이에도 주목할 것이며, 특히 여성이 전통적인 성적, 성별 규범을 어떻게 내면화하거나 그것에 협상하면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참여자 및 연구 방법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10명의 대학생으로, 연구 당시 이성과 썸을 타고 있거나 과거 썸을 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네 곳의 대형 교양과목 강의실 앞에 게시한 '썸 경험' 면접 모집 광고를 보고 연구에 응하였다. 본 연구는 '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썸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됩니까?', '썸을 탈 때 주된 감정은 무엇입니까?', '썸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썸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의 다섯 가지 반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일대일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으며 참여자가 경험한 썸의 시간적 흐름의 속성, 그리고 썸이라는 관계 맺기의 실천 특성과 썸에 부여하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면접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학 내 학생상담실에서 행하였고 시간은 개인당 1~2회 면접에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연구 사례비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 후 전사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참여자들의 특성

사례	성별	나이(세)	썸을 탄 횟수	연애 관계로 발전한 횟수
사례 1	남	27	3회	1회
사례 2	여	20	3회	1회
사례 3	여	20	6회	2회
사례 4	여	20	3회	3회
사례 5	남	20	2회	0회
사례 6	여	20	3회	1회
사례 7	남	25	5회	4회
사례 8	여	20	2회	1회
사례 9	여	22	5회	2회
사례 10	남	20	2회	0회

4. 썸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

이 글은 썸 문화의 주된 경험자인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썸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이라는 세 단계로 분석 결과를 세분화하였다. 연인관계가 두 사람의 호감을 바탕으로 ‘사귀자’는 고백과 수용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면(김정영 외, 2014), 썸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 연인관계의 과정을 고백, 사귐, 결별 또는 결혼으로 규정하듯이 썸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을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썸이라는 관계 맺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관계의 주된 감정 경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끝나는지 일련의 과정으로 면밀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1) 썸의 시작: 상호적 호감

썸은 어떻게 시작되며 썸의 주된 특성은 무엇일까?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썸은 호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호감은 어느 일방이 아닌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내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야 하는 것'(〈남, 사례 1〉)으로 상호성을 강조했다.

>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남녀가 그런 호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여, 사례 4).

호감 표현을 통해 이들이 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가능성'(〈남, 사례 1〉)이었다. 썸을 타면서 '나를 보여주고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여자친구가 될 수 있는 혹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남, 사례 7〉), 즉 사귈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 가능성을 보는 거죠. 애랑 사귈 수도 있겠나?(여, 사례 2).

상대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면 썸의 느낌이 확 들었다가 또 어떤 행동을 하면 썸이 아니라는 생각에 화가 나는'(〈남, 사례 1〉) 것처럼, 참여자들은 상대의 호감을 확신하지 못했다. 특정 행동이 명백한 호감의 신호로 사용되던 과거와 달리 남녀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그 신호의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김정영 외, 2014). 또한 호감 표현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두 사람이 함께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확신을 보면서 사귈 가능성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누군가는 영 아닌데 하면서 발을 뺄 수 있는'(〈여, 사례 2〉), 다시 말해 썸의 보이지 않는 경계에 들어가고 나감이 자유로워서 혼자 썸을 타면서 상대도 썸을 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연애는 서로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사귄다는 형태로 합의관계를 맺지만, 썸은 암묵적 합의도 아니고 나 혼자만의 설레발일 수도…(남, 사례 5).

참여자들은 상호 호감을 기반으로 썸을 타면서 서로를 탐색하고 사귈 가능성을 타진하지만, 두 사람 모두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확인"(〈여, 사례 4〉)하려 하므로 상대가 자신에게 갖는 호감의 정도나 깊이를 알 수 없어서 확신이 없는 상태를 썸의 주된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썸을 타는 동안 상대를 향한 관심이나 호감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을까? 참여자들은 주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고 있었다. '썸을 탈 때는 늘 휴대 전화를 쥐고 다니고'(〈여, 사례 3〉), '일상생활을 함께하듯이 거의 자기 전까지 카톡을 했던 것 같다'(〈남, 사례 10〉)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의 거의 모든 일상과 관심사를 모바일 메신저로 공유하다 보니 '서로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친구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된 것 같다'(〈여, 사례 9〉)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 그냥 술 먹고 다음 날 괜찮냐고 묻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 우산 챙겼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죠(여, 사례 6).

>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을 한다거나, 전화나 이런 거는 거의 사귀는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서로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정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여, 사례 4).

스턴버그(Sternberg, 1986)는 남녀가 서로 끌리는 것은 호감과 열정에 의하지만, 만남을 지속해 나가면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친밀감이 커져 이성관계가 성숙해진다고 하였다. 이때 친밀감(intimacy)은 갑작스럽게 형성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지속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적 감정을 대면했을 때보다 더 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자기 노출이나 개방이 관계의 급격한 발전에 영향을 준다(Bryant, et al., 2006). 참여자들은 주로 모마일 메신저로 두 사람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카톡으로 하면 조금 더 부끄러운 말을 잘하게 되는데 평소에 하지 않은 말을 하면서 이불 속에서 하이킥 하고'(〈여, 사례 4〉)와 같이, 대면했을 때 쑥스러워 하지 못하는 말이나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다 보니 상대와 급격하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성역할 규범이 뚜렷한 전통 사회에서 파트너 선택은 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성을 향한 호감의 표현이나 데이트 신청은 전통적 젠더 규범을 따르는 경향이 높다(윤가현 · 양동옥, 2016: 205). 흥미로운 점은, 썸 관계에서 이성을 향한 관심이나 호감의 표현은 그러한 성역할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카톡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얼굴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여, 사례 4〉)와 같이, 썸의 주된 연결고리인 모바일 메신저는 '말이나 이모티콘'이라는 제한된 단서와 자유로운 표현으로 상대에게 다가간다. 이러한 접근은 표정, 몸짓, 말투와 같은 숨길 수 없는 다양한 단서가 노출되는 대면보다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들키는 위험 부담이 낮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로 호감을 표현했을 때 상대가 이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안부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둘러댈 수 있기에 여성도 호감이 가는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양상을 보였다.

> 먼저 연락처도 물어봤고 선배였는데, 연락처를 몰랐거든요. 연락처도 물어보고 먼저 카톡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밥도 사달라고 하고…(여, 사례 3).

> 내 사진 보내면서, 이상하게 캐릭터로 꾸민 거 보내면서 뭐하냐고 보내고, 그걸 보냈는데 다음날에도 계속 답장하면서 이어졌어요(여, 사례 6).

모바일 메신저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노출은 상대와 빠르게 친근한 사이로 발전하지만, 썸을 타는 동안 두 사람의 상호작용은 자신을 깊게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와 관계수위를 조절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여, 사례 8〉)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상대에게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고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페르소나의 특성이 강했다.

>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주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나를 보여주는 느낌… 상대방이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여, 사례 4).

> 꾸준히 만나온 사람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람이고, 이 시기에는 서로의 모습을 완전히 다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포장된 모습도 있고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배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여, 사례 9).

썸을 탈 때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배려 행동이 주로 나타나지만, 썸은 정식적으로 사귀는 것이 아닌, 사귈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기에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큰 비용을 쓰지 않을뿐더러 만남에 들어간 비용을 남녀가 반반씩 지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위해 돈을 쓰는 행위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크기나 사랑의 깊이를 의미하는 연인 관계의 규범(이재경 외, 2007)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평등적으로 썸 문화를 향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썸이 더 깊은 관계인 사귐으로 이어질 수도 혹은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와해될 수도 있으므로 경제적 투자를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기에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한 욕구(한규석, 2002: 285) 혹은 경제적 손실을 원초적으로 거부하는 손실 프레임(최인철, 2007: 170)이 썸 상황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무조건 더치페이해요. 썸 타고 있을 때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자리가 아닌 이상 거의 더치로 할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6대 4 혹은 7대 3으로 조금 더 내는…(여, 사례 4).

> 돈이나 시간적 투자를 최소로 하죠. 왜냐하면 잘 안될 수도 있잖아요(남, 사례 1).

이처럼 썸의 주된 상호작용은 모바일 메신저로 이루어졌다. 관심이나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지금 뭐 하세요?'라며 쉽게 말을 걸 수 있고 또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지 혹은 끊어지는지를 통해 상대의 호감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성도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또 재미있는 이모티콘이나 캐릭터, 사진 등을 활용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했다. 하지만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기 보다는 자신을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썸이 사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시간적 · 경제적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2) 썸의 진행 과정: 설렘과 불안 사이

호감을 느끼는 상대와 썸을 타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주된 긍정적 감정은 '가슴이 두근두근'(〈남, 사례 1〉) 거리는 설렘이었다. 참여자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안부를 묻고 챙기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레며, 호감을 느끼는 이성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자기도

모르게 막 웃게 되는 활력소'(〈남, 사례 10〉)와 같다고 했다.

> 정말 행복했어요. 사귀는 건 처음엔 몇 달은 정말 좋죠. 처음엔 좋아도 갈수록 서로에게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설렘이 많이 적은데 썸이라는 건 설레는 게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여, 사례 9).

이러한 설렘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썸을 타는 상대와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 한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이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게도 했다.

> 일단 그 순간에는 설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서 외롭고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데, 썸이 순간순간의 외로움도 채워주고(여, 사례 9).

>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주말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요. 약속이 없으면 집에 맨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다보면 뭐 하는지 얘기하고 하는데 뭔가 남자랑 있다는 우월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여, 사례 8).

에릭슨(Erikson, 1963)은 성인 초기의 발달 과업으로 의미 있는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친밀감을 강조하며 이를 획득하지 못하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썸은 호감을 느끼는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의미 있는 대상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설레는 이성과 여가를 함께 보내는 것 자체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성을 부여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변 친구와 비교하여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애하는 커플은 싱글보다 '긍정적 자아 관념'이 높다는 연구(강진영 · 정태연, 2001)가 이를 부분적으

로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썸을 통한 설렘이나 친밀감이 자존감을 높이고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는 서술은 여성 참여자에게서 두드러졌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성 관계에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성적인 동기보다 친밀한 관계와 같은 정서적 동기를 더 추구하는 경향(변혜정, 2010; 윤가현 · 양동옥, 2016)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썸을 타는 동안 두 사람은 설렘이라는 강렬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상대의 호감이 자신을 정말 좋아하는 감정인지 더 나아가 자신과 사귈 의향이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또한 경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애매함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확인'(〈여, 사례 4〉)하려는 욕구가 치솟고 있었다.

>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있다는 생각에 두근거리고, 그런데 있는 게 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차라리 얘가 절 좋아한다고 했으면 확실한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남, 사례 1).

> 나랑 사귈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가, 얘는 날 좋아하는가?(여, 사례 6).

> 사람들을 가볍게 만나고 싶고 쉽게 만나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당하고 싶지는 않는 게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레발치나? 어장관리 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 얘도 나한테 괜히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남, 사례 5).

썸은 두 사람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듯 상대방을 향한 호감의 크기나 깊이를 여실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애매함이 지속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상대를 향한 자신의 마음 표현은 친한 친구와 연인의 경계 사이에 머물면서 상대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주길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강해서 애매함 속에서 확실성이라는 증거를 잡기 위한 눈치 싸움

이 심화되고 있었다. 게다가 상대방과 연락하고 만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친구', '선배',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명확히 선언하거나 명명할 수 없기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 그 사람이랑 무슨 사이야 했을 때, '선배야' 혹은 '친구야' 이렇게도 말 못하겠고 남자친구도 아니니까 '남자친구'라고도 못하고…(여, 사례 3).

> 연애할 경우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하지만 썸일 경우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연락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게 되죠(여, 사례 6).

이처럼 참여자들은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끼는 상대에 대한 설렘, 상대의 관심이나 배려를 통한 자존감 고양이나 우월감이라는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에게 가볍고 쉬운 상대가 되지 않기 위한 자기방어로 관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불안과 관계를 정의 내리지 못하는 답답함이라는 부정적 감정 역시 경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혹은 나와 사귈 의향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기 위한 감정 소모가 컸다.

3) 썸의 끝: 단절 혹은 사귐

썸을 타는 동안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상대가 호감을 알아채게 되면 2주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남, 사례 1〉)는 말처럼, 대다수 빨리 썸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썸이 오래가면 설렘이라는 긍정적 감정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과 관계를 규정짓지 않고 불안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을 때 감정 소모가 심화되어 지치게 된다는 것이다.

>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썸은 2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그 안에 사귀어

야 한다고… 길어지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서로 지칠 것 같아요(남, 사례 1).

썸이라는 게 일찍 끝나게 되는, 얘가 나를 진짜 안 좋아하는 건가 하는 의심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주 안에 사귈지 말지 결정이 나야지… 한 달이 넘어가면 긴장감도 풀어지고…(여, 사례 9).

썸을 끝내는 방식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일방이 연락을 끊는 것이었다. 먼저 썸에서 사귐으로 나아가느냐는 것은 호감 또는 좋아한다는 표현을 넘어 '우리 사귀자'(〈남, 사례 1〉)라는 고백과 함께였다. 참여자들은 사귀자는 고백을 통해 둘 사이의 관계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규정하려 했다. 흥미로운 점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대에게 관심이나 호감을 표현할 때는 전통적 젠더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던 여성들도 사귐으로 나아갈 때는 남성에게 고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사랑과 연애에 대한 표준화된 성별 규범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얘가 고백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통화하면서도 네가 먼저 고백을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제가 생각에는 어떤 보증수표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썸 타다가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남, 사례 7).

네가 사귀자고 말해, 나도 네가 좋으니까… (상대가)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제가 '옜다, 사귀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 여자 친구랑 저랑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여자친구가 부탁을 한 건데 제가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구애하고 구애해서 여자친구가 절 받아 준거…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로 사람들에게 말해 달라(남, 사례 1).

썸은 연애를 하기까지 일단은 저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서로 계속 좋아한다 말하는데, 일단 그 사이

> 가 너무 지속된다 싶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이 이거 뭐냐고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면 남자 측에서 사귀자고 말을 하고(여, 사례 6).

상대방의 호감을 확신하고 썸에서 사귐이라는 연애 관계로 나아갈 때, 참가자들은 젠더화된 연애 각본을 재현하는 양상(변혜정, 2010)을 보였다. '연애 안에서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야 하고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여, 사례 4〉) 것처럼, 여성의 경우 '상대에게 선택된' 또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수동적인 객체로, 남성의 경우 '상대에게 구애하는' 또는 '사랑을 표현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젠더 관계를 공고히 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 흥미를 잃어 썸을 지속하고 싶지 않을 때 썸은 끝나게 된다. 이때 '그냥 서서히 연락을 안 하거나 어느 한 쪽이 싫어하는 걸 티를 내거나'(〈여, 사례 6〉)와 같은 방식을 취했다. 썸을 끝낼 때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므로 헤어지는 것도 아닌'(〈남, 사례 7〉) 것이기에 언제든지 한쪽 마음이 변했다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쉽게 썸에서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 연락을 씹는다고 하죠. 씹고 나서 한 번 더 씹히면 씹힌 사람이 인지를 하는 거죠. '아, 관심이 없는 거구나'. 보통 두 번 정도 (연락을) 시도는 해보는 것 같아요(남, 사례 7).

> 카톡을 매일 그렇게 하던 애가 문자 텀이 3~4시간 이런 식으로 길어지면서 만나자라는 말에는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쪽도 알아서 흐지부지 했던 것 같아요(여, 사례 3).

또 썸이 끝났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남녀 모두 '아쉽고 외롭다 그 정도, 상대도 크게 아쉬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여, 사례 9〉), '내가 우물

쭈물하다가 그렇게 돼서 아쉽다'(〈남, 사례 5〉), 혹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여, 사례 8〉)는 아쉬움과 실망, 불쾌감과 같은 감정에 머무르며 썸의 끝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이는 썸이 필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인 '관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관계의 몰입 정도를 통제 및 조절하는 책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썸이 끝나더라도 그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썸을 통한 설렘의 유효기간을 2~3주 정도로 짧게 보고 있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썸을 타는 상대와 사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은 남성의 사귀자는 고백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만남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여성의 직·간접적 요청에 남성이 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즉 사귀자는 고백은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는 전통적 젠더 규범이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썸을 끝내는 것은 어느 일방이 연락을 끊음으로써 해결되는데, 이때 썸은 사귀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썸이 끝나더라도 깊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

5. 썸의 관계 맺기 특성과 그 의미

이 글에서는 참여자들이 썸의 관계 맺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경험의 특성과 본질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썸의 관계 맺기 특성과 그 의미는 다층적으로 나타났으나 편의상 유사한 특성끼리 묶어서 기술하고자 하였다.

1) 썸의 관계 맺기 특성

(1) 걸러 내기와 규범에 균열 내기

참여자들은 썸을 통해, 상대와 좀 더 깊은 정서적 · 육체적 관계로 나아가기 전에 상대가 위험한 특성을 지닌 사람인지 파악하거나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썸을 타는 상대가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쉽게 걸러낼 수 있는, 여과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썸은 모바일 메신저로 서로의 일상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자기 노출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만나더라도 '손잡거나 껴안는 것 외에 진한 스킨십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여, 사례 4〉)는 주장처럼, 키스나 애무 더 나아가 성교와 같은 깊은 성적 친밀감은 남녀 모두에서 억제되는 경향이 높았고, 이러한 성적 친밀감의 억제와 통제는 특히 여성에게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다.

> 사귀지 않아도 꼭 심각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남자가 이 세상에 있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해야 하나요? 썸을 타보니까 얘는 이런 또라이였고 얘는 미친놈이었고 이런 걸 다 수집해서 앞으로는 이런 놈을 만나지 말아야겠구나, 꼭 사귀지 않아도…(여, 사례 2).

> 그 사람이랑 정말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면 좋은데, 나쁜 사람이면 썸 타는 단계에서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여, 사례 4).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성교 시기나 성욕 표현과 관련된 성적 의사소통의 갈등인데, 여성은 남성보다 연애 관계 내 성

행동 결정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원하지 않으면서도 응낙하거나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성관계하는 데이트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양동옥, 2016). 또 성욕 표현과 관련한 성적 의사소통에서 남성의 성관계 제안에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내숭떠는 허울뿐인 거절로 해석하거나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을 때 성관계를 밝히는 정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연인 관계에서 여성의 성욕 표현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양동옥, 2015). 하지만 썸은 사귀는 것이 아니므로 설렘을 줄 수 있는 손잡기나 어깨동무, 껴안기 등의 가벼운 성적 친밀감에 머물기 때문에, 여성에게 썸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하거나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안전장치'로 작동하며 다양한 사람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썸을 통해 두 사람이 깊은 성적 친밀감을 공유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해 보는 것과 다양한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경험으로 이성 상대를 고르는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걸러 내기 특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두드러져 여성이 썸의 주된 소비의 주체로 합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은 썸의 관계 맺기가 연애 관계, 즉 정식적인 사귐이 아니므로 개인의 평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애는 남녀가 서로를 갈망하며 사랑하는 정서적 · 육체적인 긍정적 경험이지만, 미혼 남녀에게 연애 경험 횟수는 '육체적 친밀성'의 빈도로 간주하며 그 사람의 성적 개방성 혹은 문란함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썸은 연애 횟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사회적 규범의 잣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의 연애는 '능력'으로 평가되는 반면, 여성의 연애는 '연애질'로 불릴 만큼 불건전하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이

재경 외, 2007).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자주 많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남, 사례 10〉)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군가와 썸을 많이 타는 것은 그 사람이 가치 있고 매력적이라는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미혼 여성의 사랑과 결혼은 한두 명의 제한된 연애 경험을 통해 결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표준화된 규범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 썸은 연애에 들어가지 않죠. '썸남까지 연애 횟수에 포함시키면 너넨 시집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가끔 하거든요(여, 사례 3).

> 썸을 많이 탄다고 했을 때 저 애가 남자를 엄청 밝혀서라기보다는 저 애 자체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여, 사례 9).

> 이렇게 연애감정을 느끼다 끝이 나도 제가 사회적으로 끝장나는 게 아니니까,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죠(남, 사례 5).

(2) 속전속결과 책임감 부재

썸을 타고 있는 썸남썸녀는 상대의 장점에 대한 높은 기준치와 단점에 대한 낮은 허용치를 적용하고 있었다.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며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성격이나 개성을 탐색하고 조율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썸은 2~3주라는 짧은 기간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평가가 끝나며, 상대가 지닌 특성이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가차 없이 그 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자 했다. '예전에는 만남을 통해 관계가 계속 누적되어서 사귐에 도달했다면, 지금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쉽게 뚝뚝 끊어지는 것 같다'(〈여, 사례 2〉)는 말처럼, 썸은 속전속결의 가벼운 또는 편리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를 선택하는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연애가 가벼워지는 거죠. 저는 그래도 이만큼은 만나봐야 (상대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상대는 이 정도만 만나도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나와 안 맞으면 다른 사람 찾아보면 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남, 사례 7).

>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이상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이상형의 선이라고 할까 기준이라고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썸을 타는 사람이 그 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으니까… 썸을 타면서 더 재고 따지는 것 같아요(남, 사례 1).

사회교환(social exchange)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연인 관계에서 보상을 얻고 있다면 그 만남을 유지하려 하고 손실이 크면 그 만남을 끝내려 한다고 주장한다(윤가현 · 양동옥, 2016: 213). 연인 관계는 필연적으로 상대에게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는데, 투자 대비 이익을 최대화 혹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은 욕망이 작동하는 것이다. 물론 연인 관계가 서로의 안녕과 행복에 관심이 높으므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엄격하게 보상과 손실을 따지기보다는 공동 관계로 지속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Clark and Mills, 1970). 하지만 썸의 관계 맺기는 철저히 사회교환이론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썸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연인 관계의 가능성, 즉 상대를 걸러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맺음이 끝나도 손실이 적으며 또 다른 새로운 대안에 적은 투자로 설렘이라는 보상을 얻을 기회가 생기게 된다. 썸의 속전속결 특성은 가볍게 만나지만 상대에게 결코 가벼운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만남의 일시성이라는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상대에게 일시성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은 양가적 행위성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불확실한 만남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자기방어 욕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썸을 통해 이성과 친밀한 관계 맺기의 욕망을 쉽게 표출하기도 하지만, 그 관계에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라는 공식 호칭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역시, 상대에게 지금의 썸 관계에 책임을 느끼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남녀가 사귀게 되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게 된다. 스턴버그(Sternberg, 1986)는 이것을 헌신(commitment)이라고 했는데, 헌신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돌인 격이다. 하지만 썸은 서로를 향한 호감의 감정을 묶어 둘 수 없기에 책임 행동을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의 행동을 구속할 수도 없는 특징을 보였다. 그래서 '사귀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자제하게 되는데, 썸 탈 때는 어장관리를 많이 해요. 여러 사람과 썸 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남, 사례 7〉)는 말처럼, 지금 이 사람과 썸을 타고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동시에 썸을 타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 연락을 하루 종일 하고, 서로의 일상을 챙겨주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만약 연락이 오랫동안 안 되고 갑자기 얘 행동이 달라진 것 같아도 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아닌데, 얘한테 나를 책임지고 챙겨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도 또 반대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느 순간 서로 누군가 한 명이 마음이 변해서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책임감이 없는 그냥 썸 타는 관계일 뿐이니까(여, 사례 9).

> 일단 연애라고 하면 남친, 여친이 서로 구속하잖아요. 다른 이성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신경 쓰고 그런데 썸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니까 그런 걸 해도 신경을 못 쓰죠. 일단 화는 내긴 내지만, 네가 뭔 상관이냐고 말하면 자격이 없으니까(여, 사례 6).

2) 썸의 의미

(1) 외로움 해소를 위한 유사연애

전 생애 발달과정에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원하며 우정관계나 이성관계로 정서적 친밀감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신명희 외, 2013).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외로울 때가 가장 불행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한기혜 외, 2008), 외로움이 심화되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참가자들은 썸을 통해 일상생활의 무료함과 외로움을 채우며 즐거움이나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통해 심리적 안녕을 꾀하고 있었다.

> 외로움이 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행복하죠(여, 사례 9).

> 그냥 심심하고 연락할 사람 없고 하니까, 그냥 연락할 사람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한…(남, 사례 10).

썸은 참가자들에게 연애를 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안겨주었다. 이성교제는 육체적으로 서로 끌림과 동시에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간적, 정서적, 경제적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썸은 최소한의 에너지 투자로 마치 연인관계처럼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가벼운 성적 친밀감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삶의 활기를 준다는 것, 짧든 길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될 것 아니에요. 하루를 움직이는 혹시나 지나치다 마주치지 않을까? 아침에 화장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하지 않을까 해서 하루 종일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여, 사례 3).

>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데 귀여운 짓을 하면 손이 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하다가도 너무 귀여워서 쓰담쓰담 하면 저도 두근두근하고, 그때 표정 보면 얘도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으면서 두근두근… 썸 타고 싶다는 건 아무래도 되게 설레는 경험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남, 사례 1).

(2) 보여주기와 인스턴트 만남

썸을 타고 싶다는 욕구는 이성교제 중이거나 썸을 타고 있는 주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시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학생들의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며, 이를 통해 주변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최지애, 2013). SNS를 통해 주변 친구들이 현재 무엇에 열중하고 있는지 혹은 이성 관계는 어떠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과 주변인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성교제를 못해본 사람은 친구들 사이에서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져 기가 죽는 것처럼(윤가현 · 양동옥, 2016), 이성교제 중인 주변인과의 비교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썸을 타고 있는 이성과 즐거운 한때를 SNS에 인증함으로써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를 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썸에 편승하기도 했다.

> 불과 몇 년 전에는 길을 가다 보면 친구들끼리 혹은 개인 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 보면 거의 커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커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남자만 몰려다니면 왠지 눈치를 받는 것 같고, 커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썸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남, 사례 1).

> SNS 영향도 클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것 자기만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 그래서 사진 올리고 남자랑 사진하고 프로필 사진 해 놓고 그런 거 보면… 그냥 충동적이라고 해야 할까, 만남 자체가 되게 충동적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머리로 하는 것 같아요(여, 사례 3).

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면서 설렘을 경험하지만, 그 설렘이 약화되면 썸 관계는 수명이 다한 건전지처럼 버려진다. '연애는 상대가 좋아서 다가가는 것이라면 썸은 연애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남, 사례 1〉)이라는 말처럼, 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닌 '상황'에 집중한다. 서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시간적, 정신적 노력보다는 상대의 호감을 확인하려는 묘한 긴장감과 상대의 챙김과 배려 행동에서 비롯되는 설렘을 추구한다. 그래서 설렘이라는 상황이 종료되면 그 관계는 끝이 나게 되며 설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상대를 찾게 된다.

>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만나기가 쉬우니까 연애를 굳이 안하고 썸으로만 유지하다가 설렘 좀 경험하고 시들해지면 관계를 끝내고 누군가를 다시 찾고…(여, 사례 3).

> 진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썸 타고 싶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죠. 진짜 상대방이랑 사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데, '썸 타고 싶다'고 하는 거는 가볍게 즐기고 싶다? 거기서 잘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여, 사례 4).

> 현대의 빠름이 들어있죠. 빨리 만나고 빨리 헤어지니까,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남, 사례 5).

6. 나가며: 전략적 선택과 행위성

이 글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썸을 의미화하는 방식과 썸을 통해 맺는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특성, '썸 타기'의 실천 양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썸을 이성간의 사랑이나 연애에 관한 표준화된 도덕적, 사회적 규범을 거스르는 청년층의 부정적 세태로 보거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할 수 없는 강요된 선택으로 바라보는 대신, 사랑과 연애에 관한 기존의 규범을 내면화하면서도 그것과 끊임없는 협상과 저항을 시도하는 과정으로서, 그리고 불확실한 관계를 지향하지만 그 속에서 안정과 안전을 갈망하는 줄타기의 과정으로서 대학생들의 행위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썸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썸의 시작과 과정, 끝으로 나누어 시계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썸은 상호 호감으로 시작되었으며, 서로를 탐색하고 연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이었다. 썸 관계에서 모바일 메신저는 일상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도구이자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체로 적극 활용되었다. 모바일 메신저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호감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애관계에서 남성의 능동성 대 여성의 수동성으로 대비되는 성역할 규범이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이기도 하다.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용은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극복해주는 수단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발사모, 2012), 썸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연인 관계의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나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

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둘째, 썸의 진행과정은 설렘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것이었다. 호감을 느끼는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의미 있는 대상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썸을 통한 설렘이나 친밀감을 통해 자존감과 우월감이 높아진다는 서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썸의 끝은 연인관계로 나아가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다. 썸이 끝나고 연인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젠더화된 연애각본'을 재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썸의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던 여성이 본격적인 연인관계로 진입할 때는 남성에게 고백을 유도하거나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남성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고자 하였다. 한편 썸의 끝으로서 관계의 단절은 아쉬움과 실망, 불쾌감과 같은 감정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연애관계가 아니기에 그러한 감정들은 비교적 쉽게 극복하고 있었다. 이는 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썸의 특성상 관계의 몰입 정도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한 전략의 결과였다.

넷째, 썸의 관계 맺기 특성에서 키스나 성교와 같은 깊은 성적 친밀감은 남녀 모두에게 억제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깊은 성관계를 경계하고, 썸을 다수의 이성교제를 통해 상대를 고르는 안목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썸을 자신의 이상적인 이성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한 일종의 '걸러내기'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섯째, 썸의 관계 맺기를 통해 사랑, 연애, 결혼에 관한 전통적인 젠더 규범에 균열을 일으키는 실천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미혼여성의 다수의 남성과의 연애경험이 정숙하지 못하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는 전통적 젠더 규범 속에서 썸은 여성에게 그러한 부정적 시선으로부터의 제약을 덜 받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걸러내기와 더불어 스스로를 '썸'의 주체적 행위자로 인식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썸 행위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관계의 지속성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었다. 바우만(Bauman)은『액체 근대』(2009)에서 현대 사회의 특성 중의 하나로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사회에서 개인들의 관계 맺기는 선택의 자유와 끈끈한 유대감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둘째, 썸은 관계 맺기의 용이성을 갖기도 하지만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을 빨리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기든스는 현대인들의 연애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순수한 관계에 대한 상이 변화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서로가 충분한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관계라면 순수한 관계이며, 현대인들은 그러한 관계일 때에만 관계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애 지속 기간이 갈수록 짧아진다고 주장한다(기든스, 2003). 그렇다면 빠른 관계의 단절은 보다 독립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 연애 문화의 한 단면일 수 있다.

셋째, 썸은 전통적인 젠더 규범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게는 연애와 결혼의 위험으로부터 전략적인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연애와 결혼을 유예당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썸은 연애와 유사한 설렘과 친밀감, 감정의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표준적인 연애 관계의 속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관계의 지속성은 썸의 실천 양상에서는 전제되지 않는다. 또한 이성간의 사랑과 연애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규범은 주체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균열되고 있었다. 대학생의 썸 행위는 사랑과 연애의 포기와 갈망 사이에서 끊임없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주체적인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참고문헌

강진영 · 정태연(2001), "사랑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에서의 차이: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6권 1호, 1-21쪽.

기든스, 앤소니(2003), 『현대사회의 성 · 사랑 · 에로티시즘』, 배은경 · 황정미 옮김, 서울: 새물결, Giddens. A.(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광은 · 이위갑(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1호, 233-247쪽.

김명숙(2008),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커플들의 관계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2권 2호, 59-74쪽.

김은정(2011), "새로운 생애발달 단계로서의 성인모색기: 20대 전반 여대생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제19집, 329-372쪽.

김정영 · 이성민 · 이소은(2014), "'나'의 성장과 경험으로서 연애의 재구성: JTBC 〈마녀사냥〉 분석을 통해 본 청년 세대의 연애 담론의 풍경",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9권 3호, 45-81쪽.

김현경(2003), "프로젝트로서의 연애와 여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여자 대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효진(2012), "서울 대학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애", 『도시인문학연구』, 제4권 1호, 175-216쪽.

대학내일 20대연구소(2014), 「누가 20대를 삼포세대라 부르는가?: 20대의 연애 · 결혼 ·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대학내일 연구리포트 3월.

목수정(2010), 『야성의 사랑학: 한없이 개인적이고 지독히 사회적인 '사랑', 그 행위를 통해 들여다보는 한국 사회의 속살』,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바우만, 지그문트(2009),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서울: 강, Bauman, Z.(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_____(2013), 『리퀴드 러브: 현대의 우울과 고통의 원천에 대하여』, 권태우 · 조형준 옮김, 서울: 새물결, Bauman, Z.(2003), *Liquid Love: On the Frailty of Human Bonds on the Frailty of Human Bonds*, Cambridge: Polity Press.

발사모, 앤(2012), 『젠더화된 몸의 기술: 사이보그 여성 읽기』, 김경례 옮김, 서울: 아르케, Balsamo, A.(1996),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Reading Cyborg Wome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벡, 울리히 · 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2006),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 · 권기돈 · 배은경 옮김, 서울: 새물결, Beck, U. und E. Beck-Gernsheim(1990),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Frankfurt: Suhrkamp Verlag.

변혜정(2010), "이성애 관계에서의 자기 계발 연애와 성적 주체성의 변화", 『생명연구』, 제17권 1호, 53-92쪽.

부산대 여성연구소(2011), 『왜 아직도 젠더인가?』,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성정아 · 홍혜영(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6권 2호, 387-414쪽.

신명희 · 서은희 · 송수지 외(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양동옥(2015),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평가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0권 2호, 205-224쪽.

_____(2016),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평가에 주변 단서가 미치는 영향 :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제23권 8호, 335-358쪽.

엄기호(2010), 『이것이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서울: 푸른숲

오세일 · 박태진(2016), "대학생의 연애와 행복: 문화 레퍼토리로서 사랑, 진정성과 성찰성", 『사회이론』, 제50권, 207-248쪽.

우석훈 · 박권일(2007), 『88만원세대』, 서울: 레디앙.

윤가현 · 양동옥(2016),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윤영준(2006), 『대학생의 연애경험과 일상적 자아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안나(2013), "모텔 이야기: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생들의 모텔활용과 성적 실천의 의미 변화", 『여성학연구』, 제23권 1호, 41-73쪽.

이인재 · 양난미(2015), "대학생의 자존감과 연애 관계만족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제23권 1호, 179-198쪽.

이재경 · 민가영 · 이박혜경 외(2007), 『여성학』, 서울: 미래 M&B.

이태숙(2009), "1920년대 '연애' 담론과 기획출판: 사랑의 불꽃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7권, 7-30쪽.

일루즈, 에바(2013),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 김희상 옮김, 파주: 돌베개, Illouz, E.(2012), *Why Love Hurt: A Sociological Explanation*, Cambridge: Polity Press.

조아라 · 오제은(2014), "미혼여성이 연애경험 중 인식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6권 1호, 479-503쪽.

조현정 · 이승연(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7권 1호, 33-53쪽.

최인철(2007),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경기도: 21세기북스.

최지애(2013), "SNS 담론과 현실: 대학생 수용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한규석(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한금윤(2015),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 연구: 언론 보도와 대학생의 '자기서사' 쓰기의 간극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제28호, 7-29쪽.

한기혜 · 박영신 · 김의철(2008), "대학생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분

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2008.8.21).

Bryant, J. A., A. S. Jackson, and A. M. Smallwood(2006), "IMing, Text Messaging, and Adolescent Social Network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1(2), pp. 577-592.

Clark, M. and J. Mills(1970),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pp. 11-14.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Sternberg, R.(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pp. 119-135.

〈신문기사〉

『광주일보』, 2014.8.19, "썸(some)에 관한 단상".

『노컷뉴스』, 2014.2.24,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딴지일보』, 2015.7.8, "우리의 썸: 그것을 떠들어보려는 이유".

〈시청각 자료〉

〈지식채널e〉, EBS-TV, 월 12시 40분, 2015.2.17, "그들이 썸만 타는 이유".

(논문 투고일: 2016.11.04, 심사 확정일: 2017.05.29, 게재 확정일: 2017.06.12)

〈Abstract〉

Strategic Choice and Ambivalent Agency in the 'Some Culture' Among College Students

Yang, Dong-ouk* · Kim, Gyoung-Rae**

The 'some culture' has been regarded either as an unavoidable choice by the generation who were forced to give up their love life under uncertain and unstable social-economic conditions, or as a negative social phenomenon that is suggestive of selfish and irresponsible relationship form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ome culture' among youngsters through a strategic negotiation and experimentation process, demonstrating that the generation members create their love and romance culture independently, although 'some' is sometimes influenced by a complex social geography and standardized norms regarding love and romance. 'Some' describes a process in which a man and a woman start to be fond of each other and explore and examine the possibilities. Both romance and anxiety coexist in this process. Under these conflicting emotions, the participants tend to desire either to end the 'some' relationship quickly and develop a romantic relationship, or to break the connection off. 'Some' sometimes serves as strategic 'safety device' for females who find themselves in a relatively unfavorable position within the traditional gender norms regarding love and romance, while at other times it offers a means of sharing romance and intimacy resembling love among members of the younger generation who are forced to postpone their romance and marriage.

Key words: 'some culture', having a relationship, filtering, cracks in the norms, lack of responsibility

---

* Lead author, Lecturer,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Professor, SSK Research Group of Social Reproduc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